



MVPR-2008-39

VIP REPORT

2008. 11. 4.

■ 對 中國 수출 均衡의 原因과 전망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주원,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對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과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3

3. 최근 對 중국 수출 동향과 원인 7

4. 對 중국 수출 전망 14

5. 정책적 시사점 18

■ HRI 경제 지표 21

1. 개요

올해 10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는 對 중국 수출이 2002년 2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 부문의 고장으로 수출이 홀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지역인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은 즉각적인 국내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최근 對 중국 수출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점진해 보고 향후 수출 경기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 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 전체 수출 경기 동향

최근 우리 수출 경기는 **첫째, 10월에 들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08년 1/4분기에 17.4%, 2/4분기에 23.2%, 3/4분기에 27.7%를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9월에 전년동월대비 28.7%에서 10월에 10.0%로 급락하는 모습이다.

둘째,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수출경기 하강이 진행중이다. 수출 물량 증가율은 08년 1월 전년동월대비 18.1%를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8월에는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하여 전체적인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수출단가지수 증가율은 올해 1월 전년동월대비 0.2%에서 7월 15.4%에 이를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

셋째, 향후 수출단가지수 하락이 수출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세를 지속하던 수출단가지수 상승률이 8월에 들어 7월의 15.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 산업별 수출 경기 동향

넷째, 산업별로 보면 상당수 품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경기 유지 품목) 10월중 섬유류(5.8%)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13.5%)도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26.6%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이다.

(수출 경기 침체 품목)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10월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4.3%), 반도체(-26.4%)와 가전(-28.4%), 컴퓨터(-37.0%)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올해 평균 20%대를 유지하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들어 0.2%의 감소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경기 호조 품목) 한편 선박(전년동월대비, 117.8%) 수출은 그동안의 누적된 수주 물량으로 10월에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석유제품(45.2%)과 철강(40.1%)도 9월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지역별 수출 경기 동향

다섯째, 5대 주력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9월 19.6%에서 10월에 10.8%로 둔화되었으며, 일본에 대

한 수출도 같은 기간 17.0%에서 5.5%로 하락하였다. ASEAN에 대한 수출도 지난 8월에 전년동월대비 43.4%에서 9월과 10월에 각각 21.7% 및 6.3%로 증가세가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EU에 대한 수출은 9월에 전년동월대비 26.7%에서 10월에 $\Delta 8.2\%$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도 $\Delta 1.8\%$ 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남미(32.1%)와 중동(22.4%), 대양주(20.9%) 등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3. 최근 對 중국 수출 동향과 원인

■ 對 중국 수출의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올해 3/4분기에 들어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4분기 이후 對 중국 수출증가율은 21.6%로 총수출증가율 27.7%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 중국 수출 비중이 2007년 22.1%에서 08년 10월에는 21.8%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對 중국 수출의 전체 수출에 대한 기여율도 올해 2/4분기에 30.8%(즉 총수출증가율 33.7%중 10.4%p가 對 중국수출로 견인)에서 3/4분기에 18.5%로 하락하였다. **둘째, 수출 품목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 투자의 내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과정에 원재료나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기계류와 운수장비 등의 품목들은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중국 내 직접소비에 이용되는 품목들도 9월에 들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산업 생산의 기초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중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 최근 對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

對 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들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1%에서 3/4분기에 9.0%로 크게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국의 소비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확대되고 있어 내수 부문에서의 경기 위축에 의한 우리 수출 부진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경제의 설비투자 부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전년 누계 기준으로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나, 최근에 들어 그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고정자산투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중국 고정자산투자 중 설비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중국의 수출 경기 하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월별 수출증가율은 7월에 전년동월 대비 26.9%에서 8월과 9월에 각각 21.1% 및 21.4%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명목 수출증가율은 3/4분기에 약 23%가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0%대로 둔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08년 7월에 12.8%에서 8월 12.8%, 9월에 11.4%로 둔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업심리지표인 Business Climate Index(全國企業景气指數) 등이 08년 3/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경제심리 위축과 생산활동 약화는 한국의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 증가율은 07년 월평균 전년동월대비 84.0%에서, 08년 1~9월 기간 동안에는 월평균 10.0%에 그치고 있다.

4. 對 중국 수출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08년 10월 전망 자료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2009년에도 9%초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내외로 급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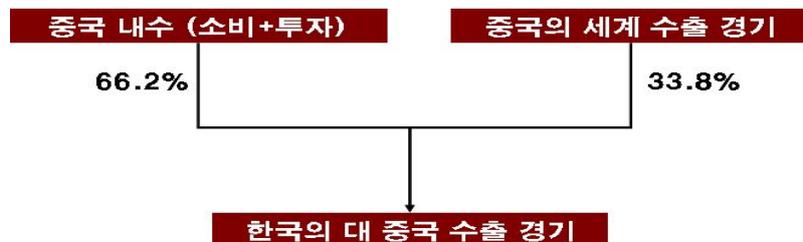
■ 중국의 수출 경기 전망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對 선진국 수출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9월의 기간 동안 중국 수출의 71.7%가 선진국과 중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46.1%가 미국(17.6%), EU(20.5%), 일본(8.0%)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아직은 중국의 對 개도국이나 신흥시장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점진적으로 이들 국가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경기 전망

우리나라의 높은 對 중국 수출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수출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은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819.9억 달러의 33.8%인 약 277억 달러(전체 수출 3715억 달러의 7.5%)**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 경기 둔화와 함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 경기도 동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은 중국 내수 경기가 양호한 편이나 이마저도 위축될 경우 對 중국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중국 내수·수출의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경기에 대한 영향도 >



5. 정책적 시사점

첫째,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경기 침체로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이용하여, 최근 열기는 식었지만 한류를 이용한 정부 차원의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마이너 마켓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한다. 아직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신흥공업국이나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산유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 수출은 신흥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문화사업과 관광, 의료, 컨설팅, 교육, IT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국 내부의 하이엔드 서비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선제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수출 경기 하강을 보완해야 한다. 향후 수출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성장률이 급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부동산 경기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안정과, 출생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의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선제적인 재정지출 확대, 추가 금리 인하 등의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우리 기술의 세계 표준화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술 경쟁력 중심의 수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흥공업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와 국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중국수출둔화의원인과전망

1. 개요

○ 2008년 10월 (1~20일)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0.0%로 9월의 28.2%보다 18.2%p가 급락¹⁾

- 지역별로 보면 2008년 1월~10월 20일 기간 동안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는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1.8%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둔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지난 7월에 전년동월대비 30.1% 증가에서 8월과 9월에 19.5% 증가 및 15.5% 증가로 수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월에는 1.8%의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음

○ 對 중국 수출증가율 급랭은 국내 전반적인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부문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문만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수출 경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對 중국 수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경우 수출 경기 하강으로 국내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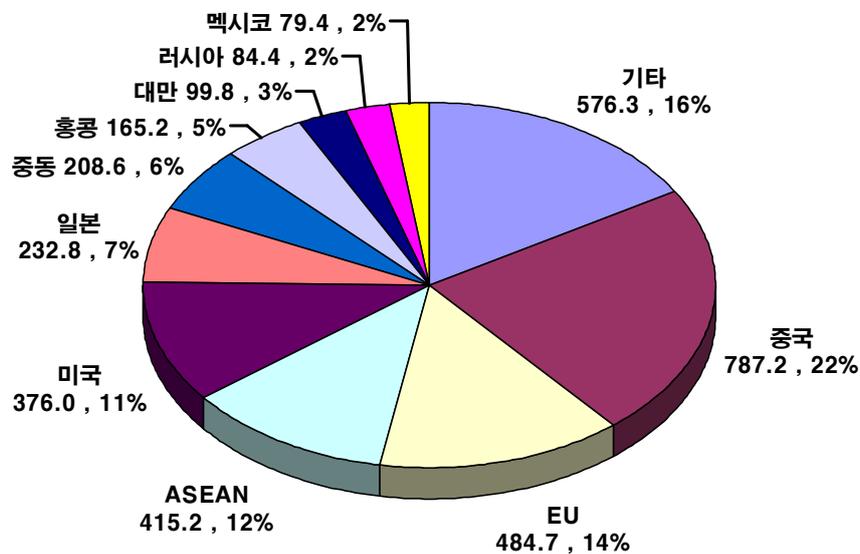
1) 다만 10월 수출 증가율은 1~20일 기간 동안의 잠정치로 추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되는 확정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2008년 1~10월(10.1~20일) 현재 對 중국 수출 비중은 22%로 수출대상국중 1위를 기록

- 우리 전체 수출의 약 65%는 중국, EU, ASEAN, 미국, 일본의 5대 수출 대상 지역의 수출이 차지함
- 2008년 1~10월의 기간 동안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같은 기간 동안 787.2억 달러로 전체 수출 3,683.1억 달러의 약 22%를 차지함
 - 단일 국가로는 對 미국 수출이 376.0억 달러(전체 수출의 약 11%)로 2위
 - 수출 대상 지역에 경제권까지 포함시킬 경우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14%, 對 ASEAN 수출 비중이 12%로 對 미국 수출 비중을 상회함

< 한국의 주요 국가별·지역별 수출액 및 수출 비중(2008년 1~10월) >

(단위: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은 총수출에 대한 국가별 수출 비중임.

○ 이에 최근 對 중국 수출 경기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점검해 보아 향후 수출 경기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 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2008년 3/4분기까지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에 들어 증가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수출증가율은 2007년 연간 14.1%에서 2008년 1/4분기에 17.4%, 2/4분기에 23.2%, 3/4분기에 27.7%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감
- 최근 월별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9월에 전년동월대비 28.7%에서 10월에 10.0%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최근 대외 거래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수출 증가율	14.1	17.4	23.2	27.3	35.6	18.2	28.2	10.0
수입 증가율	15.3	28.8	30.5	43.0	47.2	36.4	45.8	12.0
무역수지(억 달러)	146.4	△65.3	△0.3	△79.0	△20.4	△38.0	△20.6	12.2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2008년 10월은 1~20일 기간 동안의 잠정치.

○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08년 1월 전년동월대비 18.1%**를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8월에는 2.0%**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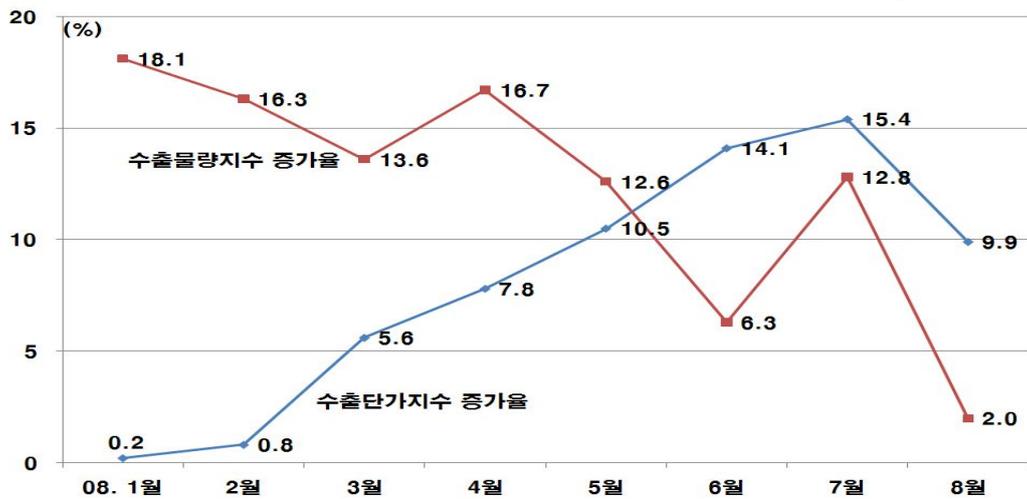
- 반면 수출단가지수 증가율은 올해 1월 전년동월대비 0.2%에서 7월 15.4%에 이를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함
- 다만 8월에는 수출단가지수 증가율과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8월 수출증가율이 7월의 35.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8.7%를 기록함

-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 : 6.3(08년 6월) → 12.8(7월) → 2.0(8월)
- 수출단가지수 증가율 (%) : 14.1(08년 6월) → 15.4(7월) → 9.9(8월)

<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단가지수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산업별 수출 경기 동향) 10월중 우리 주력 수출 품목중 선박, 석유제품, 철강제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수출 경기 호조 품목 : 선박(전년동월대비, 117.8%)은 그동안의 누적된 수주 물량으로 10월에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10월중 석유제품²⁾(45.2%)과 철강(40.1%)도 9월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출 경기 유지 품목 : 섬유류(5.8%)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13.5%)도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26.6%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중

2)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나프타 등 연료성 제품이 해당되며, 석유화학제품은 석유화학 산업의 중간 원료나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이 해당됨.

- 수출 경기 침체 품목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10월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4.3%), 반도체(-26.4%)와 가전(-28.4%), 컴퓨터(-37.0%)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중임
 - 특히 올해 들어 평균 20%대를 유지하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들어 0.2%의 감소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냄

<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품 목	MTI코드 ³⁾	2007	2008				비중 (08년 1~9월)
			1/4	2/4	3/4	10월	
경공업		2.6	9.2	6.2	12.6	—	6.3
· 석유류(의복포함)	4	1.6	1.6	0.3	5.2	5.8	3.1
· 신발	512	△0.8	△1.3	4.6	17.0	—	0.1
중화학공업		15.2	17.6	24.1	28.1	—	91.9
· 비IT 품목		14.7	22.2	28.4	40.4	—	66.7
· 석유제품	133	17.5	64.0	101.7	101.7	45.2	9.4
· 석유화학제품	21	19.6	22.4	23.1	26.4	△0.2	8.0
· 철강제품	61	18.5	13.6	33.7	56.9	40.1	7.0
· 자동차	741	13.3	8.7	△0.3	△13.3	△14.3	8.0
· 선박	7461	20.7	15.7	46.9	133.6	117.8	8.4(1~8월)
· 산업 및 정밀 기계	71~73	32.9	34.5	35.2	29.8	—	7.5
· 가정용전자제품	82	△7.7	5.1	14.7	2.6	△28.4	3.2
· IT 품목		16.4	7.9	13.6	3.6	—	25.2
· 무선통신기기	812	12.7	29.2	30.7	26.6	13.5	8.3
· 컴퓨터	813	9.8	5.9	△12.1	△28.4	△37.0	2.7
· 반도체	831	4.5	△15.6	2.6	△9.7	△26.4	8.1
· FDP	8361	36.4	31.3	27.0	14.9	—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 2008년 10월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지식경제부가 10월의 1~20일의 실적을 바탕으로 월간 증가율을 추정함(지식경제부 2008년 10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3)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는 (舊)산업자원부에서 무역 동향 파악을 위해 비슷한 종류의 HS(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코드를 통합하여 새로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 (지역별 수출 경기 동향) 지역별로 보면 5대 주력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10월 수출증가율이 9월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선진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9월 19.6%에서 10월에 10.8%로 둔화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도 17.0%에서 5.5%로 둔화됨
 - EU에 대한 수출은 9월에 전년동월대비 26.7%에서 10월에 △8.2%의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1.8%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2002년 2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임
 - ASEAN에 대한 수출도 지난 8월에 전년동월대비 43.4%에서 9월과 10월에 각각 21.7% 및 6.3%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중남미(32.1%)와 중동(22.4%), 대양주(20.9%) 등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총수출 증가율	14.1	17.4	23.2	27.3	35.7	18.7	28.7	10.0
중국	18.0	20.7	33.7	21.6	30.1	19.5	15.5	△1.8
미국	6.0	△2.6	5.6	9.7	9.4	1.0	19.6	10.8
일본	△0.6	12.2	16.9	14.8	22.7	4.8	17.0	5.5
EU	13.7	16.0	2.6	14.6	12.3	6.0	26.7	△8.2
ASEAN	20.8	34.7	38.6	48.1	82.3	43.4	21.7	6.3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2008년 10월은 1~20일 기간 동안의 잠정치.

3. 최근 對 중국 수출 동향과 원인

(1) 對 중국 수출의 동향

○ 올해 3/4분기 이후 총 수출 증가율보다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낮은 상태를 지속하여 對 중국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 2008년 1/4분기와 2/4분기의 對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0.7% 및 33.7%로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

- 그러나 올해 3/4분기에는 對 중국 수출증가율이 21.6%로 총수출증가율 27.7%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냄

- 월별로는 7월 이후 (8월은 對 중국 수출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 對 중국 수출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지 못하는 가운데, 9월과 10월에 들어서는 각각 13.2%p 및 11.8%p의 격차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총수출증가율과 對 중국수출증가율 추이 >

(%, %p)

	2007	2008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총수출 증가율	14.1	17.4	23.2	27.3	35.7	18.7	28.7	10.0
對 중국 수출 증가율	18.0	20.7	33.7	21.6	30.1	19.5	15.5	△1.8
총수출증가율-對 중국수출증가율	3.9	3.3	10.5	△5.7	△5.6	0.8	△13.2	△1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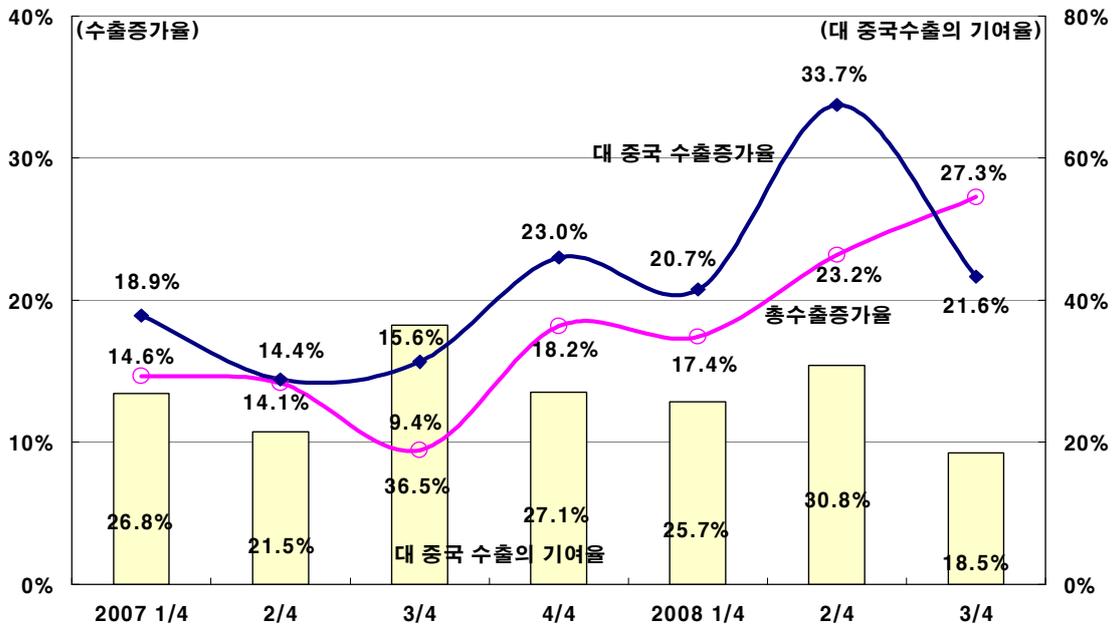
주 : 2008년 10월 총수출증가율은 지식경제부가 10월의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지역별 수출 증가율은 지식경제부가 1~20일의 통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지식경제부 2008년 10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 이에 따라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 중국 수출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對 중국수출/총수출(%) : 22.1(07년)→ 22.2(08년 1/4)→ 22.9(2/4)→ 22.3(3/4)
→ 21.8%(10.1~20)

- 對 중국 수출의 전체 수출에 대한 기여율도 올해 2/4분기에 30.8%(즉 총수출증가율 33.7%중 10.4%p가 對 중국수출로 견인)에서 3/4분기에 18.5%로 하락

< 최근 수출증가율과 對 중국 수출증가율 및 중국수출의 기여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최근에 들어서는 투자와 소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에 원재료나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 12대 품목 수출이 對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9월 기간 동안 약 67.3%에 달함

- 산업 생산의 기초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중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의 경우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석유제품의 對中 수출증가율(%): 248.7('08.7)→ 94.7(8)→ 62.7(9)→ 29.6(10)
 - 석유화학제품의 對中 수출증가율(%): 25.1('08.7)→ 10.0(8)→ 14.9(9)
 - 철강제품의 對中 수출증가율(%): 69.5('08.7)→ 45.9(8)→ 67.3(9)→ 21.7(10)

- 산업 생산의 기초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중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 들어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반도체의 對中 수출증가율(%): 17.0('08.7)→ △0.6(8)→ △13.4(9)→ △31.2(10)
 - 자동차부품의 對中 수출증가율(%): △7.9('08.7)→ △8.0(8)→ △2.8(9)→ △48.2(10)

- 한편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기계류와 운수장비 등의 품목들은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냄
 - 자동차의 對中 수출증가율(%): △20.0('08.7)→ 10.6(8)→ 22.2(9)
 - 선박의 對中 수출증가율(%): △6.3('08. 1/4)→ △80.6(2/4)→ 6,047.9(8~9월 평균)
 - 산업 및 정밀기계의 對中 수출증가율(%): 31.1('08.7)→ 38.7(8)→ 32.7(9)

- 또한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중국 내 직접소비에 이용되는 품목들은 8월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9월에 들어 증가세로 다시 반전됨
 - 가전의 對中 수출증가율(%): 31.7('08.7)→ △2.2(8)→ 23.5(9)
 - 무선통신기기의 對中 수출증가율(%): 36.1('08.7)→ △2.9(8)→ 29.5(9)

< 주요 對 중국 수출 품목의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품 목	2007	2008							비중 (08 1~9월)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총 對 중국 수출	18.0	20.7	33.7	21.6	30.1	19.5	15.5	△1.8	100.0
경공업	1.5	0.7	2.1	0.1	3.4	△7.3	4.5	-	5.4
섬유류	△2.4	△4.7	△3.6	△2.1	2.5	△8.6	△0.5	-	2.7
신발	△6.0	△9.5	1.7	10.4	7.2	15.4	9.8	-	0.2
중화학공업	19.2	21.8	35.6	22.5	31.6	20.9	15.3	-	93.3
비IT 품목	12.4	24.4	42.1	37.7	45.1	38.6	29.3	-	63.8
석유제품	3.9	58.3	141.9	120.5	248.7	94.7	62.7	29.6	10.0
석유화학제품	23.5	15.3	28.3	16.8	25.1	10.0	14.9	-	16.8
철강제품	△2.4	27.0	25.0	60.6	69.5	45.9	67.3	21.7	4.7
자동차 부품	△14.1	△12.5	8.4	△6.3	△7.9	△8.0	△2.8	△48.2	2.2
자동차	36.5	23.8	45.6	4.7	△20.0	10.6	22.2	-	1.0
선박	266.8	△6.3	△80.6	-	4992.9	7102.8	-	-	0.8
산업 및 정밀 기계	29.5	48.0	41.3	34.0	31.1	38.7	32.7	-	10.3
가정용전자제품	△7.7	24.2	32.4	16.5	31.7	△2.2	23.5	-	2.4
IT 품목	32.2	17.2	23.5	0.3	9.9	△4.0	△4.0	-	31.2
무선통신기기	34.0	30.5	19.6	19.5	36.1	△2.9	29.5	-	6.7
컴퓨터	25.2	6.4	△15.5	△41.1	△41.0	△38.0	△44.1	-	4.8
반도체	13.6	△7.5	38.3	0.2	17.0	△0.6	△13.4	△31.2	9.8
FDP	110.1	55.9	40.7	13.9	17.0	15.0	10.3	-	7.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선박의 수출 비중은 2008년 1~8월 기준임.

(2) 최근 對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

○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

-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1%에서 3/4분기에 9.0%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중국 경제성장률(%): 11.9(07)→ 10.6(08.1/4)→ 10.1(2/4)→ 9.0(3/4)

<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1/4	2/4	3/4
경제성장률	11.6	11.9	10.6	10.1	9.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경제의 설비투자 부진

- 부문별로 보면 중국의 소비, 부문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 소매판매증가율은 7, 8, 9월에 모두 전년동월대비 23.2% 수준을 기록함
- 한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누계 기준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나, 최근에 들어 그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고정자산투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중국 고정자산투자 중 설비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 한국의 對 중국 원자재·자본재 수출증가율(%): 30.5(08.7월)→ 20.8(8월) → 15.1(9월)
 - 한국의 對 중국 원자재 수출증가율(%): 53.7(08.7월)→ 25.3(8월)→ 28.7(9월)
 - 한국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증가율(%): 14.2(08.7월)→ 17.8(8월)→ 6.0(9월)
 - 한국의 對 중국 소비재 수출증가율(%): 24.8(08.7월)→ 0.2(8월)→ 21.2(9월)

< 중국의 소비 증가율 및 투자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1/4	2/4	3/4	7월	8월	9월
소매판매	13.7	16.8	20.6	22.2	23.2	23.2	23.2	23.2
고정자산투자	24.5	25.8	25.9	26.8	27.6	27.3	27.4	27.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상무부.

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연초이후 누계기준.

○ 중국의 수출 경기 하강

- 수출 부문의 경우 3/4분기에 23%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0%대로 둔화된 것으로 알려짐
- 월별 수출증가율도 7월에 전년동월대비 26.9%에서 8월과 9월에 각각 21.1% 및 21.4%로 둔화됨

<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1/4	2/4	3/4	7월	8월	9월
수출	27.2	25.7	21.3	22.3	23.1	26.9	21.1	21.4

자료: 중국 상무부.

○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 약화

-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4%에서 2/4분기에 15.9%, 3/4분기에 13.0%로 둔화됨
 - 최근 월별 증가율을 보면 7월에 전년동월대비 12.8%에서 8월에 12.8%, 9월에 11.4%로 둔화
- 중국 기업들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Business Climate Index(全國企業景氣指數), Confidence Index of Entrepreneurs(企業家信心指數爲)가 08년 3/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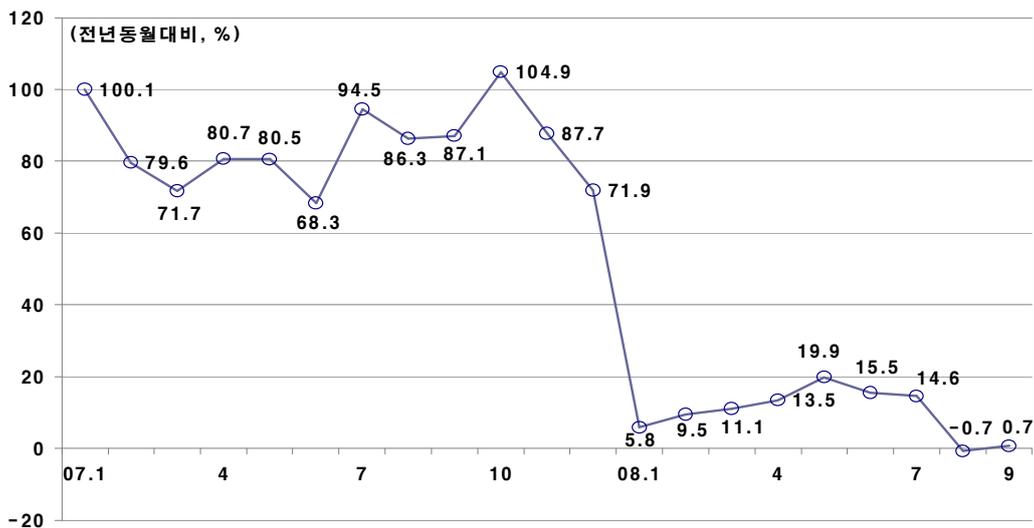
	2007	2008		
		1/4	2/4	3/4
산업생산	18.5	16.4	15.9	13.0
全國企業景氣指數 (Business Climate Index)	143.6	136.2	137.4	128.6
企業家信心指數爲 (Confidence Index of Entrepreneurs)	139.6	140.6	134.8	123.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주: 2007년 Business Climate Index 및 Confidence Index of Entrepreneurs는 4/4분기 수치임.

-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경제 심리 위축과 생산 활동 약화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 증가율 2007년 월평균 전년동월대비 84.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1~9월 기간 동안에는 월평균 10.0% 증가에 그침

< 한국의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4. 對 중국 수출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중국 경제는 **2009년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나 경기 급랭의 가능성도 상존함

- IMF는 08년 10월 전망 자료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2009년에도 9%초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8%내외로 급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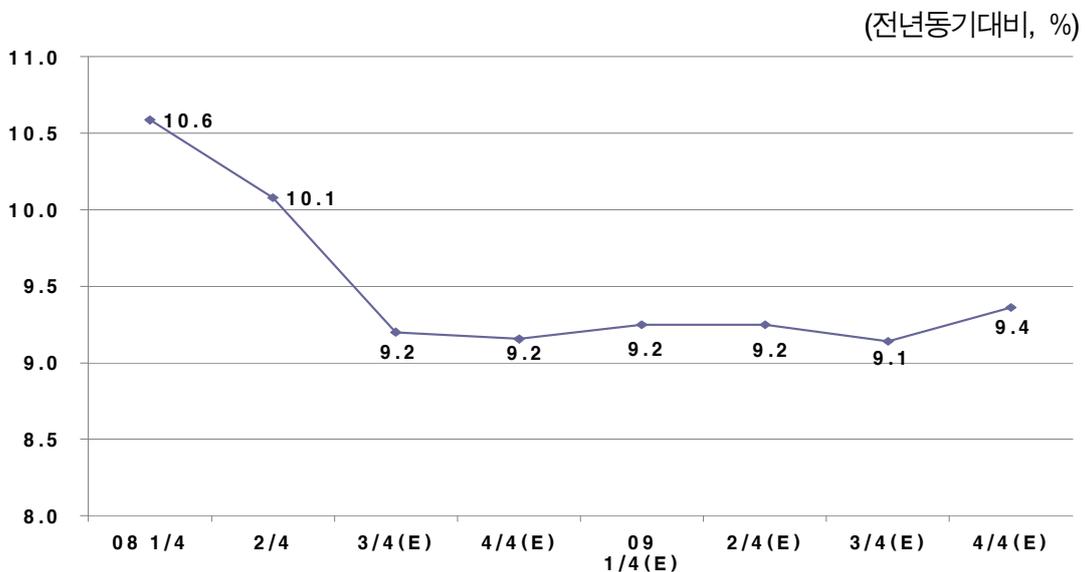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⁴⁾(%) : 9.8(08) → 8.0(09) [Deutsche Bank]

9.6(08) → 7.9(09) [Standard Chartered]

9.8(08) → 8.2(09) [Morgan Stanley]

9.6(08) → 7.5(09) [UBS]

< IMF의 중국 경제성장률 분기별 전망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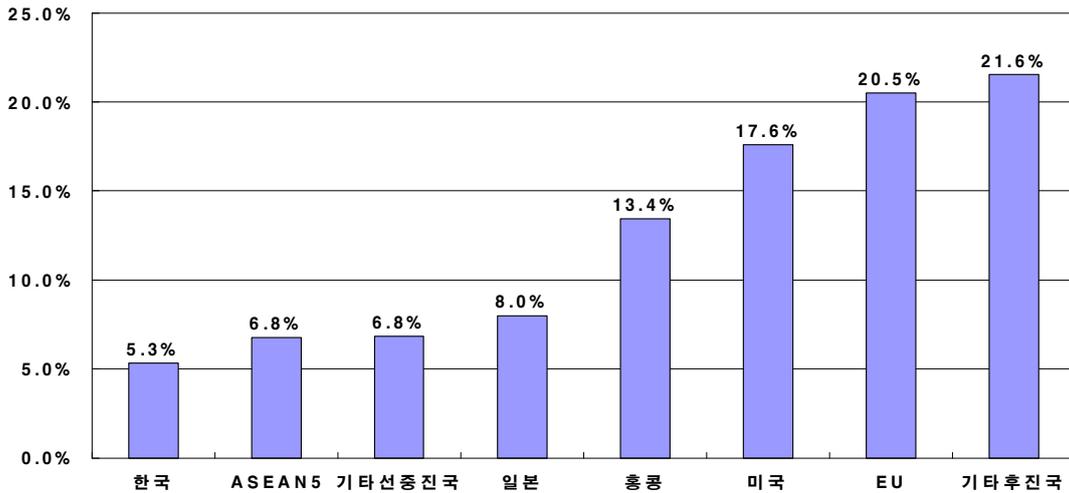
주: 2008년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실적치는 9.0%임.

4) 10월말 현재 각 투자은행 홈페이지.

○ (중국의 수출 경기 전망)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對 선진국 수출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수출 구조는 중후진국보다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임
 - 2008년 1~9월의 기간 동안 중국 수출의 71.7%가 선진국과 중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46.1%가 미국(17.6%), EU(20.5%), 일본(8.0%)에 집중되어 있음
 - IMF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중국의 對 미국 수출/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이지만, 제3국을 통한 중간재·자본재 수출의 간접 경로까지 고려할 경우 12.2%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의 국가별(경제권별) 수출 비중 (2008년 1~9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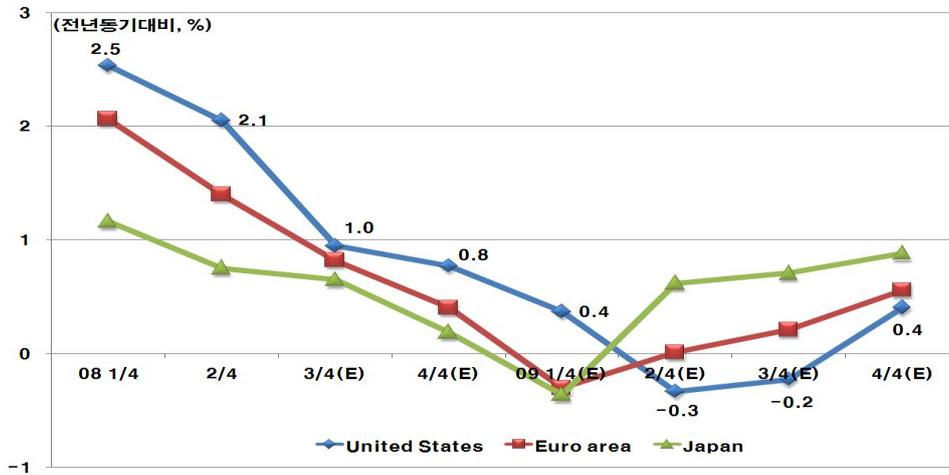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기타선진국에는 대만, 호주,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포함.

-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 전반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함
 - IMF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2.0(07) → 1.6(08E) → 0.1(09E)
 - IMF의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2.6(07) → 1.3(08E) → 0.2(09E)
 - IMF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2.1(07) → 0.7(08E) → 0.5(09E)

< IMF의 미, 유로, 일 경제성장률 분기별 전망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또한 아직은 중국의 對 개도국이나 신흥시장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점진적으로 이들 국가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경기 전망) 우리나라의 높은 對 중국 수출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수출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 경기 둔화와 함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 경기도 동반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기준 한국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은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819.9억 달러의 33.8%인 약 277억 달러(전체 수출 3715억 달러의 7.5%)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추정됨
- 특히 중국의 내수 경기마저도 위축될 경우 對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상존함

<參考> 우리나라의 중국 경유 간접수출 추정⁵⁾

- 2000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중 18.9%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수출로 추정
 -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가 작성한 2000년 기준 한중일 국제산업연관표 ([별첨] 참조)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3조 1,112억 달러의 생산(총산출)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만 191억 달러를 수입함
 - 중국의 3조 1,112억 달러의 산출은 다시 중국 내 중간수요로 1조 8,092억 달러로 투입되고 중국의 소비와 투자에 1조 473억 달러, 수출에 2,456억 달러로 배분
 - 또한 중간수요가 다시 내수와 수출로 산출액 비중만큼 배분된다고 가정함
 - 결과적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산출액 배분 과정을 통해 직간접으로 사용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191억 달러중 36.2억 달러(18.9%)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간주할 수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819.9억 달러의 33.8%인 약 277억 달러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추정됨
 - 중국 경제의 수입의존도(명목수입/명목GDP)는 2000년 18.8% → 2007년 29.2%
 - 중국의 총수입 대비 對 한국 수입액 비중은 2000년 10.3% → 2007년 10.9%
 - 중국의 GDP 대비 對 한국 수입액 비중은 2000년 1.9% → 2007년 3.4%
 - 2000년과 2007년의 중국의 산업 및 수입 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중국의 증가한 수입의존도 비율을 고려하면 2007년 중국 총산출액의 직접 배분과 중간수요를 통한 2차 배분을 고려하면 33.8%가 수출에 사용
 - 이 수출 배분비율 33.8%를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적용할 경우, 2007년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819.9억 달러중 약 277억 달러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수출로 추정

< 중국의 총수입의존도 및 對 한국 수입의존도 추이 >

	중국의 총수입/중국GDP	중국의 對 한국 수입/총수입	중국의 對 한국수입/중국GDP
2000	18.8%	10.3%	1.9%
2001	18.4%	9.6%	1.8%
2002	20.3%	9.7%	2.0%
2003	25.2%	10.4%	2.6%
2004	29.0%	11.1%	3.2%
2005	29.5%	11.6%	3.4%
2006	29.8%	11.3%	3.4%
2007	29.2%	10.9%	3.2%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중국 통계 기준.

5)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중국 산업연관표가 국산 및 수입 거래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산업연관표도 2002년 기준인데서 오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임. 따라서 추정에서 전제로 한 2000년과 2007년의 ①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없다는 점, ② 한국의 對 중국 수출 품목 비중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한 가정임을 밝힘.

5. 정책적 시사점

○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세계경기 침체로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이용하여, 최근 열기는 식었지만 한류를 이용한 정부 차원의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마이너 마켓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

- 아직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신흥공업국이나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당분간은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산유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

- 신흥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 제조업 수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문화사업과 관광, 의료, 컨설팅, 교육, IT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 내부의 하이엔드 서비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선제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수출 경기 하강을 보완

-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 의한 인플레이에 직면한 이후 최근에는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로 선·후진국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경제 성장이 내수와 수출 두 부분에 의해 견인된다고 할 때, 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수출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높음
- 향후 수출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성장률이 급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부동산 경기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안정과, 출생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의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함
- 특히 선제적인 재정지출 확대, 추가 금리 인하 등의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의 세계 표준화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함
- 특히 신흥공업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신흥개도국에서 생산되는 모조품, 도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안센터(NISC)등의 기능을 확대시켜 기술보안과 산업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HR1**

【별첨】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의 한중일 국제 산업연관표

< 한중일 국제산업연관표(2000년) >

(단위: 억 달러)

		중 간 수 요			중 간 수요계	최 종 수 요				통계적 불일치	총산출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일 본	수 출		
중간 투입	한 국	5,164	191	125	5,480	4,807	24	65	1,646	-20	12,001
	중 국	77	17,845	170	18,092	24	10,473	279	2,456	-212	31,112
	일 본	212	270	37,151	37,632	69	75	44,329	4,681	37	86,823
수입		1,123	1,348	2,571	5,042	290	307	1,297			
국제운임보험료		67	94	93	253	12	19	68			
관세와상품세		55	209	215	480	117	58	141			
중간투입계		6,697	19,956	40,324	66,978	5,318	10,956	46,179			
부가가치		5,304	11,155	46,499	62,957						
총투입		12,001	31,112	86,823	129,935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에서 再인용.

주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미·일·중국 등 10개국 간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발표해오고 있음(2000년 기준 국제산업연관표는 2006년에 발표된 자료임).

주 원 연구위원 (02-3669-4030, juwon@hri.co.kr)

이주량 연구위원 (02-3669-4334, jryanglee@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0	4.3	3.9	3.2	4.7	
	최종소비지출 (%)	4.7	2.7	2.3	2.0	2.6	
	민간소비 (%)	4.5	2.5	2.2	1.9	2.5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6	0.8	2.3	
	건설투자 (%)	1.2	-1.3	1.5	1.0	1.9	
	설비투자 (%)	7.6	1.2	2.3	1.2	3.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60	-103.5	-10	-30	2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47	-90	-2	-10	8
		수출 (억 \$)	3,715	4,410	4,917	2,360	2,557
		증가율 (%)	(14.1)	(18.7)	(11.5)	(10.3)	(12.6)
		수입 (억 \$)	3,568	4,500	4,919	2,370	2,549
증가율 (%)	(15.3)	(26.1)	(9.3)	(7.4)	(11.1)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9			
	실업률 (%)	3.2	3.3	3.4			
	국제유가(Dubai, \$)	68	100	80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929.0	1,060.0	1,04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45	5.3			
	회사채금리 (3년만기 BBB+ 무보증, 평균 %)	6.11	7.5	6.9			